

카자흐스탄의 농업과 농촌 현실

정준모(선교사, 카자흐스탄)

1. 들어가는 말

『농촌과 목회』 편집자로부터 카자흐스탄 농업과 농촌현실에 대해 글을 써 달라는 부탁을 받고, 과연 카자흐스탄 농촌 이야기가 한국의 농촌 목회자들에게 무슨 도움이 될까 생각해 봤다. 아직 카자흐스탄 현실은 농촌 지역까지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기에 농촌 목회자라는 개념도 없다. 그리고 카자흐스탄은 전통적으로 경종농업보다는 목축업을 중심으로 살아온 민족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니, 오히려 같은 지구촌에 살면서도 서로 다른 모습으로 살아온 카자흐스탄 농촌 이야기가 독자들에게 큰 흥미를 갖게 할 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어쩌면 같은 입장에서 카자흐스탄 농업과 농촌의 현실에 대해 공감할 부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필자는 카자흐스탄 농업 전문가가 아니어서 여러 사람의 증언과 논문들과 책들을 참조하겠지만, 부족한 점은 어쩔 수 없을 것이다. 독자들이 아량으로 너그럽게 이해해 주길 바란다. 다만 중앙아시아

에서 8년 정도 살면서 보고 경험한 것들과 느낀 점들을 참조해서 한국 농업이나 농촌과 비교하며 글을 쓰려고 한다. 우선 카자흐스탄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하고 나서 농업과 농촌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2. 카자흐스탄 개관

1) 일반적 개관

카자흐스탄은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중앙아시아에서 약간 북쪽에 위치한, 국토 면적이 아주 넓은 나라이다. 그 크기가 한반도의 12배 이지만, 인구는 아주 적어 약 1700만 명 정도이다. 카자흐스탄의 큰 특징 중의 하나는 가장 최근에 평화적으로(하나님의 은혜로) 독립한 나라라는 점과, 미국처럼 다민족 국가라는 점이다. 카자흐인은



펠트(모자나 양탄자 제조에 쓰이는 양털 혹은 짐승의 털 가공품)를 만드는 카자흐 아낙네들의 모습

실제적으로 인구의 반을 못 미치고 있다. 민족별 인구 구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카자흐인(42%), 러시아인(38%), 기타 독일인(6%), 우크라이나인(5.8), 위그르인, 우리 고려인도 약 1%를 차지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의 종교 역사를 보면 한 때는 기독교(경교)를 받아들이기도 했었지만, 10세기 이후로 줄곧 이슬람교를 믿어왔고, 19세기 이후 이주해온 러시아인들은 주로 러시아 정교회(희랍 정교회)를 신봉하고 있다. 물론 소련 사회주의 지배에서는 종교 말살은 없었지만, 공공연한 탄압으로 신앙 활동이 억제되다가, 1990년대 소련이 붕괴되고 개방된 이후 각 종교들이 부흥 발전하고 있다.

기후는 스텝 기후라서 가을부터 봄까지는 비가 꽤 오는 편이지만 여름에는 고온 건조하다. 그래서 카자흐스탄은 천연적으로 목축하기에 알맞다.

카자흐인은 자유를 사랑하는 민족이다. '카자흐'라는 말의 의미가 바로 '자유민' '유랑인'이란 의미가 있다. 어느 것에도 구속받기를 싫어하는 것은 유목 민족의 전통에서 나온 것일 것이다. 이들은 역사적으로 봉건사회를 거치지 않았다고 자랑한다. 다시 말하면, 카자흐인의 역사가운데는 노예 제도가 없었다고 한다. 생각해 보면, 드넓은 들판에서 유랑하며 목축하는 이들이 뭐가 아쉬워서 남의 노예로 살아가겠는가?

2) 약 사(略史)

역사적으로 민족들의 못자리라고 불리는 알타이산맥 부근에서 여러 민족 이동이 시작되었는데, 카자흐스탄 지역은 그 이동의 주요 통로였다. 투르크 민족들이 중앙아시아 지역에 이주하여 자리잡기 시작한 것은 8세기 경이었다고 알려진다. 그 이후 13세기에는 몽고 민족의 지배를 받기도 했다. 카자흐라는 민족이 형성되기 시작한 것은 15세기 경이었다.

제정 러시아가 카자흐스탄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1735년 오렌부르크 요새를 건설하면서부터이며, 19세기 중반에는 전 카자흐스탄 지역이 러시아의 지배권 하에 들어가게 되었다. 카자흐스탄은 축산물과 곡물의 공급지이고, 공업 제품의 식민지 시장으로써 러시아와 경제적 결속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

1918년 러시아에 소비에트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카자흐스탄도 카자흐스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이 되었다가, 1990년 카자흐스탄 공화국으로 개명하였으며, 1991년 12월 16일 독립을 선언하고 주권국가가 되었다.

3) 오늘의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은 독립 이후에 나름대로 정치가 안정되어 있고,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순조롭게 개방과 발전을 이끌어 가고 있다. 약간의 민족적, 종교적, 문화적인 갈등이 존재하지만, 중앙아시아 여러 국가들 중에 가장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것이다. 첫째로, 다양한 민족 구성이 오히려 개방적인 사회로 가게 하였을 것이다. 둘째로, 풍부한 천연 자원과 넓은 영토, 적은 인구라는 점도 도움이 됐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포함한 인권과 민주주의의 발전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빨랐다는 점이 중요한 이유였을 것이다.

세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카자흐스탄에서도 계속 되는 도시화로 인해 농촌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으며, 특히 젊은이들의 도시 이주로 농촌 현실이 고통스럽기는 마찬가지이다. 특히 인접한 중국의 공산품과, 농산물의 막대한 유입으로 산업의 경쟁력을 잃어버리는 것이 카자흐스탄의 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갑작스러운 개방이후 사회주의 체제가 자본주의 체제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오는 필연적인 혼란을 겪고 있다고 본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뒤에서 좀더 자세히 기술하겠다.

3. 카자흐스탄 농업

1) 목축업

중앙아시아라고 다 목축업을 기반으로 살아온 것은 아니다. 우즈베키스탄 같은 나라는 역사적으로 농업이 더 중요한 산업이었다. 지금도 여름에 우즈베크를 여행하면 흔히 볼 수 있는 끝없이 펼쳐진 들판에 목화가 하얗게 핀 모습은 장관이라고 할 수 있다. 포도를 비롯한 과일도 풍부하다.

그런데, 카자흐 민족은 원래 목축을 주요 생활 수단으로 살아온 민족이다. 지역에 따라 북부지역은 전적으로 목축(방목)에 의지하였고, 알마티주와 침켄트주 등과 같은 남부 카자흐스탄은 반농반목의 형태로 살아왔다. 재미있는 것은 중앙아시아 여러 민족들이 얼굴 생김새는 비슷한데, 역사와 민족적 특성이 서로 다르다는 점이다. 가령, 우즈베크 민족은 정착민으로써 상업과 농업을 주로 담당하였으며, 키르기스 민족은 목축을 하되, 주로 산악을 오르내리며 하고, 카자흐 민족은 평원에서 목축을 하는 것이다. 참고로 중앙아시아의 산에는 한국과 달리 산에 나무가 없다. 특별한 몇 군데를 빼면 소나 양, 말들이 뜯어먹기에 좋을 정도로 풀들이 자랄 뿐이다. 여름에 고온 건조하기 때문이다.

카자흐스탄은 세계적으로 목축지의 크기가 여섯 번 째로 큰 나라이다. 물론 목축 기술 부족으로 그 생산 규모면에서는 아직 미흡하다. 그러나 가능성만은 크다고 하겠다. 농업에 사용되는 땅이 전체의 18.3%인데 반해 목축지는 전체 면적의 66.5%이다.

카자흐스탄의 주요 목축은 양, 소, 말 그리고 낙타, 닭, 오리 등이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중앙아시아에서는 양돈을 하지는 않지만(러시아인들은 돼지고기를 아주 좋아함) 전통적으로 이슬람을 신봉하는 카자흐인들을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다. 그리고 돼지고기는 아무데서나 팔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시장에서만 살 수 있다.

카자흐스탄은 1990년대 독립된 이후 큰 혼란을 겪고 있다. 목축과 관련해서, 구(舊)소련 시대에는 집단 농장을 통해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으며 공동으로 생산하고, 필요한 곳에 고기를 배분하고 하다가, 독립 이후에 이런 생산과 유통 체계가 무너지면서 많은 혼란을 겪고 있다.

몇 가지 문제점들을 들면, 목축 기술이 후퇴하였으며, 대량 생산이 어렵게 됐고, 무분별한 도살로 가축들이 현격히 줄어들고 있으며, 영세한 농촌 사람들이 자기 것이 아닌 부자들의 양이나 소를 키워주는 형태(일종의 목축 소작농)로 전락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외국 자본과 기업들이 들어오면서 유가공 및 육가공 제품들이 개발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독립 이후에 카자흐스탄의 도시는 서서히 발전을 하고 있는데, 농촌은 황폐화되어 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관리들은 조속한 시일



말탄 카자흐 처녀의 양치는 모습

내에 농업과 농촌에 관련된 법규들을 새롭게 개혁하여 10년 내로 농촌을 다시 살려보겠다고 한다. 그러나 쉽지만은 않은 형편이다.

2) 농 업

(1) 카자흐스탄 농업의 특징

전술한 바와 같이 카자흐스탄의 농업은 전통적인 것이 아니다. 제정 러시아 시대 이후로 러시아인들의 이주와 1937년 고려인의 이주로 농업 분야에서 많은 발전을 가져왔다. 국토 면적의 18.3%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인데, 그 중에 논농사는 극소수이고, 대부분이 밭농사이다. 땅은 넓지만 농민의 숫자가 적어서 기계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 구 소련 시대에는 전적으로 집단 농장을 통해 생산하였는데, 지금은 그 근본 구조가 무너지고 새로운 형태의 구조가 형성되고 있는 과정에 있다.

2000년 현재, 농업 기업(회사)이 운영하는 농지가 가장 많고(약 70%), 농민협동조합이 약 25%의 땅을 운영하며, 나머지 개인적인 농민이 차지한 땅은 5% 정도이다. 참고로 구 소련 시대에는 국민이 개인 소유로 가질 수 있는 땅은 집과 다차(주말 별장-별장이라기 보다는 과일이나 채소를 생산할 수 있는 50평정도 농토이다)가 전부였다.

(2) 주요 작물

카자흐스탄에서 재배되는 대표적인 작물은 밀이다. 한국처럼 가을에 파종하기도 하고, 이른봄에 파종하는 것도 있다. 그 외에도, 호밀, 보리, 귀리, 목화, 사탕 무, 해바라기, 감자, 수수, 메밀, 벼, 참외, 수박, 그밖에 사료 식물 등 다양하다.

이러한 작물은 지역에 따라 현격히 다르다. 예를 들어, 남카자흐스탄의 물이 많은 곳에는 과일, 채소 등이 풍부하고 벼농사까지(비록 적은 양이지만) 이뤄지지만, 북쪽으로 가면, 밀농사와 해바라기

와 같은 농사만 가능하다.

농산물을 작물별로 재배 면적을 구분하여 보면, 곡물이 전체의 76.6%이고, 면화와 같은 공예 작물이 3.9%, 기름 작물(해바라기 씨앗)이 2.7%, 감자 1%, 채소 0.6%, 원두 작물(수박, 참외 등)이 0.2%, 그 외에 사료 작물이 17.4%이다.(2000년 통계) 통계에 의하면 곡물은 늘어가고 있으며, 사료 작물은 줄여가고 있다.

우리 한국은 좁은 땅에서 많은 사람이 농사짓는 노동집약적인 형태로 농업이 발전해 왔다면(지금은 물론 아니지만), 카자흐스탄은 넓은 땅에 씨를 뿌리거나 심어놓고 하늘에 맡기고 기다리는 형태의 농업이 발전돼온 것이다. 그러므로 농업 기술이 쇠신되고, 관개 시설이 발전하면, 카자흐스탄의 농업은 무궁무진한 발전이 가능한 곳이다.

4. 농촌 현실

카자흐스탄의 농촌은 우리 한국의 농촌과 비교해 볼 때에 풍경은 많이 다르다. 농업이 주가 아니고 목축이 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과거에 사회주의 정책으로 땅은 철저히 국가 소유였으며, 집단 농장 형태로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아직 그 풍습이 잔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화에 따른 변화와, 경제 구조의 변화로 많은 고통을 안고 있는 현실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얼마때 농업 대학의 도서관에서 근무하는 A씨는 농촌에 사는 친척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 줬다.

농촌에서는 지금 공립학교의 황폐화로 자녀 교육이 어렵게 됐고, 많은 진료소들이 문을 닫아서 의료 혜택을 받기 어려우며, 공산품의 물가 상승으로 전보다 살기가 아주 어렵게 됐다고 한다.

아직 농사지을 수 있는 땅이 농민들에게 돌아온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농업회사를 세울 재력도 없는 가난한 농민(또는 목축민)들

은 그야말로, 텃밭에 심은 감자와 채소들, 과일들, 집에서 키우는 젖소의 우유를 짜먹으며, 먹고 남은 것은 내다 팔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카자흐스탄을 포함한 구 소련 지역의 농촌의 변화는 우리 한국인으로서 이해하거나 짐작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큰 지진이 일어난 것과 같다. 자본주의 형태로의 변화와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는데, 이것이 과연 농촌을 발전시킬 것인지, 더 힘들게 할 것인지 아직 모른다.

나자르바예브 대통령도 이것을 알고 있다. 그는 개혁의 성공을 장담하고 있다. 그런데 몇 가지 딜레마가 있다. 가장 큰 이슈는 전에 국가 소유의 땅을 누구에게 돌아가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개인이나 회사냐(물론 벌써 토지의 대부분이 농업 회사에게 넘어갔지만 국영이 많고, 사용권만 넘어갔다.), 농촌에 거주하는 농민이냐 아니면 누구에게나 허용할 것인가? 농촌 인구는 줄고 생활 환경은 갈수록 황폐화 되어가는 농촌을 어떻게 다시 활기를 찾게 할 것인가? 농촌 개발 자금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런 무수한 문제들을 풀기에는 고차원 방정식이 필요할 것이다.

조만간 농지 관련법과 농촌 관계 법령을 개정하려고 하는데, 과연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에 따라 카자흐스탄의 농촌의 미래가 달라질 것이다. 농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가고 농촌 경제가 살아나는 올바른 방향으로 개정되길 간절히 바란다.

5. 나가는 말

인류 역사가운데 가장 근본적이고 유서 깊은 산업이 농업(목축업, 어업)이다. 그래서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至大本)'이라 했던가.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에도 통하는 진리이다. 물론 우리 한국의 농업과 그 형태는 매우 다르지만 말이다.

도시화, 공업화 이외에도 카자흐스탄 농촌은 사회주의에서 시장

경제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오는 충격과 고통은 상상하기 어려운 정도이다.

선교사의 눈으로 볼 때에 카자흐스탄에는 농업 관련 선교사도 필요하다. 단순히 농업 기술의 발전을 위해서만 아니고 변화하는 농촌, 고통받는 농민을 섬기기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개척해 나갈 선교사가 절실히 요청된다.

마지막으로 중앙아시아에 이주한 고려인 이야기를 하고 싶다. 스탈린이 1937년 고려인을 중앙아시아로 이주시킨 이유로 알려진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일본과의 전쟁을 앞두고 고려인들이 일본인과 식별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라는 것과, 다른 하나는 중앙아시아의 농업 개발을 위해 농업 전문가 고려인이 필요했었다는 것이다. 필자는 나중 견해에 동의하고 싶다. 고려인들이 중앙아시아에 와서 논농사와 채소, 특히 양파와 마늘과 같은 농사를 가르쳤기 때문에 그들의 식생활의 변화를 가져왔다. 육식을 주로 하는 중앙아시아인들이 채소와 양파를 섭취하게 함으로써 평균 수명을 연장시켰다는 것이다.

이곳 중앙아시아인들도 고려인에 대해서만은 감사하게 생각한다. 아울러 한국 선교사로서 고려인이 없었다면 어떠했을까를 생각해 본다. 그들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1990년 이후에 그렇게 빨리 한국 선교사들이 구 소련 선교를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역사의 주되신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라고나 할까.